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콧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기분이 나쁘거나 아파서 코를 찡그릴 때 주름이 생기는 부분.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콧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기분이 나쁘거나 아파서 코를 찡그릴 때 주름이 생기는 부분.

콧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콧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콧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코쌀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콧살
  20세기현재
- 코쌀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코쌀, 콧살

콧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콧살’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콧살’은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을 뜻하는 ‘코’와 사람이나 동물의 뼈를 싸서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분을 뜻하는 ‘살’이 결합하면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콧살’을 소리대로 표기한 ‘코쌀’도 나타난다.

문헌 속의 콧살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코쌀, 콧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코쌀, 콧살

출처 1937 조선일보 12월 13일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맨 먼저 황천왕동이가 재치 잇게 “굿 구경하고 떡이나 어더먹을까” 하고 코쌀을 질머지고.

현대어 풀이

맨 먼저 황천왕동이가 재치 있게 “굿 구경 하고 떡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콧살을 찡그리고.

출처 1938 조선일보 1월 4일 석간 5면

용례 02

문헌 용례

넘우 긴 이야기라도 하면 구찬어서 콧살을 찡기는 것을 본다.

현대어 풀이

너무 긴 이야기라도 하면 귀찮아서 콧살을 찡그리는 것을 본다.

출처 1950 경향신문 1월 30일 2면

용례 03

문헌 용례

여인은 생글생글 웃는 얼굴에 콧살을 찡글 찡글여 입술을 한번 빗쑥 내밀어 보이고 나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콧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콧살의 뜻과 역사